

# 소공동체 모임

천주교 산호세 한국 순교자성당

2007년 3월

- \* 소공동체 모임은 신자들의 기도 모임이며,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 \*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 \* 모임은 60분에서 90분을 넘지 않도록 하며 집주인은 간단한 차를 준비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 모임 순서

소공동체 모임준비: 중앙에 십자가와 그 옆에 성모상을 준비하고 촛불을 켜 놓는다.  
어린이들이 여럿이 있으면 별도로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실도 준비한다.

개인 준비물: 성경, 묵주, 기도서, 영적 필기도구 등

1. 시작 성가: 115번(수난 기약 다다르니)
2. 묵주 기도 봉헌: 반장은 미리 그날의 지향에 대해 알려주고 5단을 봉헌한다.  
(새 성전이 마련될 때까지는 성전건축을 지향으로 바친다)
3. 성경 읽기: 마르 1,12-13
  - 그날 복음, 혹은 자유롭게 성경을 택할 수 있다.
  - 대표 교우가 큰 소리로 낭독한다.  
돌아가면서 1절씩 읽는다.
  - 잠시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닿는 구절을 마음에 새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4. 말씀 나누기
  - 말씀 나누기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다.  
말씀이 끝나면 '주님 영광 받으소서' 라고 기도한다.
  - 말씀 나누기는 토론의 장소가 아니기에 토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기쁜 마음으로 경청한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교우를 위해 기도한다.(화살기도)
5. 자유기도 봉헌: 빠짐없이 돌아가면서 개인의 기도를 봉헌한다.
6. 공동기도 봉헌: 가정, 자녀, 나라, 평화, 외교인 등 공동기도를 기도서에서 함께 봉헌할 수 있다.
7. 기타:
  - ① 새 성전 마련을 위한 기도를 정성껏 바친다.
  - ② 본당 30주년 준비한다.
    - 2007년 가정성화를 위해 가족과 함께 기도하기
    - 새 성경 읽기와 성경문제 풀어보기(성경 읽기표 참조)
  - ③ 사순절 신앙생활표를 실천한다.
  - ④ 다음 모임을 결정한다.
8. 주님의 기도: 서로 손을 잡고 주님께 기도를 드린다.
9. 마침 성가: 117번(지극한 근심에)

MEMO

## 복음 선교의 정신

### 성령의 작용 아래

성령의 작용 없이는 복음 선교는 불가능하다. 나자렛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 위에 성령이 내려오시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는 성부의 말씀이 들려왔다. 이때에 성령은 외면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선택과 그 사명을 표시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서의 시련을 당하러 가셨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 예수님은 갈릴래아로 돌아오시어 나자렛에서 설교를 시작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성경의 이 대목은 오늘 여러분이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에 성령을 받으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사실 사도들이 교회의 복음 선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만방으로 향해 떠난 것은 성령 강림 이후였던 것이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나는 모든 인간에게 나의 성령을 부어 주리라.”라고 말한 요엘 예언자의 예언에 대한 성취로서 설명하고 있다. 베드로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오로도 사도직에 헌신하기 전에 “성령을 가득히 받았다.” 이와 같이 스테파노가 부제직에 선정되고 그 후 순교하던 때도 그와 같았다. 베드로와 바오로, 그리고 열두 사도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말할 것을 가르치신 성령은 “모든 청중에게 내려오셨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교회는 점점 성장하였다. 성령께서는 교회의 혼이시다.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신비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이다. 성령께서는 초대 교회나 지금이나 다 같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의지하는 선교자 안에서 활동하고 계신다. 스스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바른말을 말하게 하고 동시에 듣는 사람의 마음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신다. 복음 선교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 것이라 하더라도 성령의 은밀한 활동을 대신할 수는 없다. 가장 완전한 준비라도 성령이 없이는 아무 효과도 없다. 설득력 있는 화술이라 해도 성령이 없이는 무력하다. 사회학이나 심리학으로 세밀하게 세운 이론이라도 성령이 없이는 아무 가치도 없다.

우리는 오늘 성령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작용하시는 시기에 살고 있다. 어디서든지 신자들은 성령을 더 잘 알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성령 안에 모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한다. 성령께서 교회 활동의 모든 면에서 작용하신다면 특히 복음 선교 사업 안에서 더욱 작용하신다. 복음 선교가 시작된 것이 성령 강림날 아침이었다는 것은 우연한 일은 아니다.

복음 선교 활동의 주동은 성령이시라고 할 수 있다. 복음 선교를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분도 그분이고, 사람의 깊은 양심 속에서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께서는 복음 선교의 목적이고 종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성령께서 새로운 인류를 일으키시고 복음을 전해주신다. 복음 선교가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필연적으로 바라는 다양성에 대하여 일치될 도모케 하시는 것도 성령이시다. 성령을 통해서 복음은 세계 속에 지속하게 된다.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증표이며 시대의 표지가 되기에 복음 선교는 이 표지에 의해서 인간 생활을 비추어준다.

## <성경목상>

### 광야에서 받으신 유혹

그 뒤에 성령께서는 곧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서는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마르 1,12-13>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 광야로 나가신 이야기를 전합니다. 광야는 본디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사탄의 영토요, 들짐승들 땅입니다. 성령께서 그리로 예수님을 ‘내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추방이 아니라 이끄심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40일간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십니다. 밝음은 욕신을 키우고 어둠(시련)은 영혼을 익힙니다. ‘40’은 사람이 하느님의 일에 동참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련의 기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40년간 사막에서 살았고 모세는 계명을 받기 전 40일간 걸어서 하느님의 산(호렙)에 들어갔습니다. 광야는 들짐승의 땅이지만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들짐승만의 땅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 거기 섞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왜 그러한 광야로 나가셨을까요?** 홀로 지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당신 혼자만이 아니라 당신을 보내신 하느님과 혼자 머무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광야는 극한적인 환경 때문에 어려움과 괴로움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유혹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수없이 유혹에 넘어가고 온갖 시련 앞에서 무기력해집니다.

또한 **만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이 극한적인 분위기 속에서 인간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직접 이러한 광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에 광야를 마련해야 합니다. **하느님과 만날 수 있는 광야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혼자 사시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사명을 수행키 위해 백성 가운데로 돌아오시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우리 역시 영신적으로 광야로 나간다면 그것은 현실로부터 달아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은 결국 같이 있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광야의 시간을 가질 때 칠팔퀴 돌듯 하는 우리의 나날이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새로운 힘과 새로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나눔>

1. 광야는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내가 찾아 나선 광야는 어디입니까?
2. 나를 유혹하고 있는 것은?

## 하느님은 삼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느님은 삼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 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 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느님을 부릅니다.

하느님은 삼등입니다.

거리에서도 삼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삼등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 나는 일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 할 때는 만사를 제쳐 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느님께 언제나 일등입니다.

나도 하느님을 일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내미는

나도 하느님을 일등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일등이신 하느님을

나도 일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느님은 몇 등이십니까?

